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6. 7

1st Week

목 차

■ 본문

1. 유럽위원회, EU 표준화 정책 현대화 작업 추진
2. InfoComm, 시청각 이미지 사이즈 관련 표준 제정

■ 기타소식 5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유럽위원회, EU 표준화 정책 현대화 작업 추진

(European Commission takes steps to modernize EU's standardisation policy)

보도날짜 2016.06.01.

출 처 EC (유럽위원회)

사 이 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62_en.htm

- 2016년 6월 1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표준이 기술적 개발과 정치적 우선순위, 국제적 흐름의 관점에서 한층 진보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수립함
 - 이번 정책의 목적은 유럽 표준화 시스템(ESS, European Standardization System, 2013.1.1.시행)을 현대 실정에 맞게 변환하기 위한 것임
 - 경제 변화 속도, 서비스 중요성 증가, 디지털 혁명 등의 국제적 흐름을 유럽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EC는 유럽이 표준화의 세계 중심이 되도록 '단일시장 전략(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음
 - 이번 표준화 시스템의 현대화 정책은 단일시장 전략(Single Market Strategy)에 업데이트 되었고, 2016년 4월 채택된 '디지털시장 전략의 ICT 표준화 우선순위'에 통신 분야가 추가되었음
- [주요 정책1] 6월 1일, 유럽위원회(EC)는 '표준화 공동 이니셔티브(JIS, Joint Initiative on Standardization)'의 틀을 마련하고, 13일 공식 발족함
 - JIS 회원은 ESOs(CEN, Cenelec, ETSI), 산업, SMEs, 소비자 단체, 무역연합, 환경 단체, 위원회 등으로, 2019년까지 표준의 적절한 공급, 표준의 현대화, 우선화(prioritising)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JIS는 'Horizon2020¹⁾ 혁신 프로그램 및 EU 연구'의 지원 받아, 더 나은 연구와 혁신적 원동력으로 표준의 우선순위 확립과 유럽표준이 국제 수준에서 사용되도록 촉진할 것임

1) Horizon2020: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기침체 해소 및 경제 안정,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립한 Europe2020 전략의 일환으로, R&D 투자 확대 및 구현을 위해 구축한 연구재정 지원 프로그램
[출처: 한국연구재단 'EU Horizon2020']

- [주요 정책2] 유럽 표준화의 2017년 작업 프로그램(안)은 '서비스 및 ICT'를 미래 표준의 우선순위 분야로 정함
 - 2016년 4월, 유럽위원회는 ICT 표준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5G,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데이터기술, 사이버보안을 주요 분야로 확정하였으며, 이번 현대화 정책에서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였음
 - EU 경제에 서비스 부분이 70%를 차지하나, 서비스 표준은 유럽표준의 2%에 해당함. 이런 표준의 단편화(fragmentation)는 서비스 부분이 해외에 이용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유럽위원회는 자발적 유럽 서비스 표준 개발을 목표로 서비스 분야 현대화를 제안함

2. InfoComm, 시청각 이미지 사이즈 관련 표준 제정

(InfoComm International Releases New Standard for Display Image Size)

보도날짜 2016.06.10.

출 처 PR Newswire

사 이 트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infocomm-international-releases-new-standard-for-display-image-size-300283044.html>

- 2016년 6월 10일, 세계 시청각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협회인 인포컴 인터내셔널(InfoComm International®)은 시청각 시스템의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표준을 제정
 - 관련 표준 : ANSI/INFOCOMM V202.01:2016, Display Image Size for 2D Content in Audiovisual Systems
-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두 개의 미세한 시각 정의 필수요소(기본적 및 분석적 의사결정)에 따른 상대적 시각 초점과 디스플레이 이미지 사이즈를 확정해줌
 - 이 두 시각적 범위는 이미지 시스템 명암비율(PISCR, Projected Image System Contrast Ratio)을 적용한 ANSI/INFOCOMM 3M-2011에서 파생됨
 - 이미지 콘텐츠의 사이즈, 이미지 높이, 해상도 등은 모두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할 때 규범 요소로, 이번 표준은 상대적인 수평/수직적 시청자 위치뿐만 아니라 가깝거나 먼 시각적 거리를 포함하며, 환경 상 한계에 직면한 경우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공식을 제공함
- InfoComm은 표준 이외에도 시청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적절한 디스플레이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 및 평가 도구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임

▷ **인포컴 인터내셔널** : 미국 ANSI의 ASD(Accredited Standards Developer)로 미국국가표준(ANSI) 제안 권한이 있는 표준화단체로, 1999년 발족하여 전세계 80여개국의 7만명이 넘는 AV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협회. 인포컴 인터내셔널은 AV표준, 시장조사, 뉴스 자원의 선두주자로 AV의 우수 표준 개발을 위해 업계에 교육, 인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http://www.infocomm.org/standards>)

기타 소식

CCSA, 차이나텔레콤(중국) 주도 사물인터넷 관련 IEEE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

- ▶ 출처 : http://www.ccsa.org.cn/article_new/show_article.php?categories_id=bd9e5912-b7da-4a84-b6ce-44b1bfae9bd5&article_id=cyzx_d28f0c87-eea8-c830-7f15-575f5c545245 (2016.06.14.)
- 지난 4월, 중국 차이나텔레콤이 주도한 IEEE의 사물인터넷 관련 2개 표준이 ISO/IEC JTC1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향후 중국이 사물인터넷 분야 국제적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ISO/IEC/IEEE 18881:2016 (Information technology - Ubiquitous green community control network - Control and management)
ISO/IEC/IEEE 18883:2016 (Information technology - Ubiquitous green community control network - Security)